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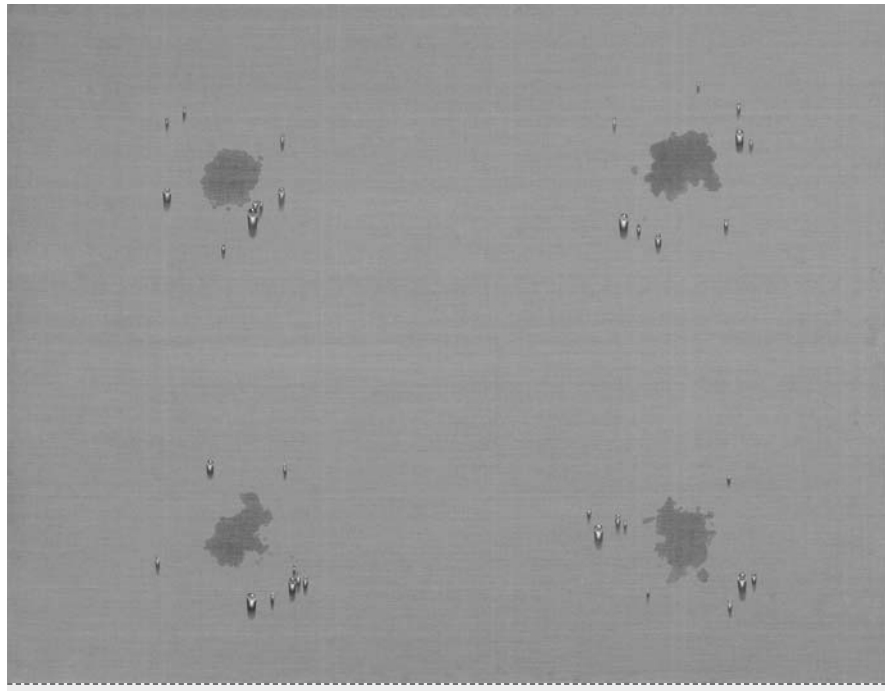


# 맺혀 있음에 머물지 않은... '물방울의 방'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1972-1983 물방울 작업 조명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전시

맺혀 있음에 머물지 않았다. 영롱한 물방울은 단순하게 맺혀 있는 데에 멈추지 않고 표면으로 흐르거나 스며드는 형상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수많은 고민과 실험의 흔적들이 화면 지지대에 묻어났다. '물방울 화가' 김창열(1929-2021) 화백의 물방울 회화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가 마련된다. 이달 5일부터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1 전시실에서 열리는 소장품 기획전 '물방울의 방 1972-1983'이다.

이번 전시는 김 화백이 1971년 물방울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선택한 이후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 1972년부터 1983



김창열의 '물방울' (마포에 연료, 유채, 1981).

년까지의 물방울 작업을 조명한다. 그의 기증 작품 220점 중 주요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미국 뉴욕에서 판화를 전공한 뒤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김 화백은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살롱전에서 물방울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이후 평생 '물방울'을 그렸다.

그의 1970년대 물방울 작업은 대체로 물방울이 캔버스에 맺혀 있는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스프레이 기법을 활용한 극사실적 표현이 특징이다. 실제 물방울처럼 빛을 발하며 화면에 존재하는 것을 두고 김 화백은 '초사실주의적 작업'이라고 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물방울은 맺혀 있는 것에서 표면에서 흐르고 흡수되는 다양한 형상으로 묘사된다. 스프레이 기법에서 벗어나 붓을 이용한 회화적 실험을 시도한 흔적이 이 시기에 드러난다.

전시 이름인 '물방울의 방'에 대해 미술관 측은 "16세기 유럽 귀족들이 진귀한 수집품을 보관했던 '호기심의 방'에서 착안했다"며 "미술관의 핵심 기능인 작품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오는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440>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 맹 이 풀맨 "아고-기여, 우리 줄네가 '한라산 백록담에 헤양호 눈-' 이영 골 압신디 경 잘 알압구나게. 그디를 녹담단설이·축는 디, 한라 산꼭데기에 이신 백록담 소꿉 물이 풀안 사슴 탄 온 신선이 그 물을 먹엿젠축는 전설이 잊저게. 그디 헤양호게 문영 이신 저 슬 눈이 5월7일장 안녹양 한라 영산 봉우리를 은빛주룩 헤양게 빛내어 주주."

하르바지 풀맨 "하르바님, 경축인 백록담에 헤양호 눈 귀경 어느제민 축여 지쿠과?"

줄 네 풀맨 "에야-오맹이야, 축슬시라. 붉나결랑 한라산 백록담에 강 보게."

하르바지 풀맨 "아오딜아-이제 열메 엿영 볼 오메. 그때라그네 시원하게 이 하르방이영 훈디 한라산에 올라가 보게. 이제랑 영실기압이영 축는 디를 정리축여보게. 한라산 정상 서남작 허리께에 곱양 이신 갑야 세운 거 닭은 천연에 기압 절벽의 풍광이 영실기압이라. 산방산이 장엄하게 우뚝 자리잡안 싹고, 산방덕이 흘치는 눈물 이신디가 산봉골사라. 제주성안 산지포구의 꿩기잡이 고운풍광을 산포조어라. 풀밭디 질루는 물덜광 갈기세양 내들리는 물덜의 풍치가 이신 고수목마라. 이제 영주심경 든 정리 축엿저."

줄 네 풀맨 "에-하르바님, 제주의 그 옛날 영주심경을 든 곱아주젠 축난 축말 에엿수다."

- 제주어 풀이**
- \* 꿩기 : <이름>물고기나 물의 고기 모두를 일컫는 말.
  - \* 헤양호다(헤양하다,헤양한다,헤양한다,헤양한다,헤양한다,헤양한다): <그림>하얗다.
  - \* 축다 : <그림>판다. \* 먹엿젠축는 : 먹었다고 하는
  - \* 어느제민 : 언제면. \* 열메 엿영 : 열마 없어서. \* 서남작 : 서남쪽.
  - \* 절벽(거정,기정,절벽,천하귀정,천하귀정) : <이름>남떠러지.
  - \* 풀밭디 질루는 물덜광 : 풀밭에서 기르는 말들과.
  - \* 갈기 : <이름>말이나 사자 따위의 뒷목에서 등을 따라 난 긴 털.
  - \* 갈기세양 내들리는 : 갈기를 세워서 내달리는.

## 책장을 엮다... 나눔도서 작가 6인과의 만남

소설가 김이설·김홍신  
8일 제주문화관서 대담



문학나눔 포스터

제주에서 문학나눔도서 작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끝없는 가능성의 책장을 엮다-문학 나눔, 작가 대담'이 오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제주 문화관에서 열린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작가 대담은 전국 순회의 여섯번째 마지막 시간이다. 지난달부터 수원, 대구, 인천, 대전, 전주를 돌며 진행된 이 행사는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의 우수 작가들을 소개하고 지역 독자들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독서 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주에서 진행되는 작가 대담은 하피스트 이경진의 연주로 문을 열어 허상문 평론가의 진행으로 문학나눔 추천 도서 작가 6명과

대담이 이어진다. 소설가 김이설, 수필가 강지혜, 시인 도복희, 소설가 김홍신, 그림책 작가 김영화, 시인 설하한 작가가 함께한다.

대담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인생의 정오, 균형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김이설 소설가의 '우리가 안도하는 사이', 강지혜 수필가의 '내가 감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도복희 시인의 '몽골에 갈 거란 계획'을 조명한다. 2부에서는 '사랑 속에 다시 피어나는 삶'이라는 주제로 김홍신 소설가의 '죽어 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 김영화 그림책 작가의 '봄이 들면', 설하한 시인의 '사랑하는 일이 인간의 일이라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박소정기자

## 예향 서귀포 문학기행 나서는 전국 문인들

6-8일 서귀포문인협회  
38명 찾아 역사문화체험

전국 문인들이 서귀포 문학기행에 나선다.

서귀포문인협회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예향의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서귀포의 역사와 문화를 전국 문학지에 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2025년 도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문인들이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를 탐방하며 역사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이들을 위한 문예에 탐방체험기를 쓰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탐방에는 한국시인협회 시인들과 에세이 문학작가회 수필가, 문협 광진지부, 군포 문협, 공주 문협, 영등포 문협, 중앙구 문협, 대전 작가회의, 여수 문협, 석정문학회, 전주 문협, 전북불교문협, 무주문협

등 38명의 문인들이 참여한다.

이 기간 이들은 윤봉택 전 서귀포문인협회 회장의 '제주역사와 문화' 특강을 시작으로 정영자 회장이 해설사로 나서 '서귀포를 빛낸 예술가의 흔'이라는 주제로 서귀포 작가의 산책길, 기암미술관, 새언교를 탐방한다. 또 단산 등을 찾아 제주의 화산활동과 오름에 대해 알아보고 알뜨르비행장, 4·3의 비극 현장을 찾는 근대 문화 기행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녀문화 탐방과 테왁만들기 등 제주해녀 체험에도 나선다.

협회 관계자는 "4·3과 6·25 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의 역사적 흐름을 함께 해온 서귀포 문학을 널리 알리고 예향 서귀포를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해녀 문화와 곳자왈 등 특색의 향토성을 알려 천혜의 자연과 풍광에 관광이 병행하는 서귀포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연구비·총서 출판비 지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2025년 제주학 연구비·총서 출판비 지원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연구비 지원은 기획 주제 1건, 자유 주제 4건을 공모한다. 기획 주제는 2000만원 이내, 자유주제는 8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기획 주제의 연구 과제명은 '제주 섬과 교류한 역사 속 인물 재조명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단체(기관)가

신청 가능하다. 자유 주제는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과제 연구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출판비 지원은 제주학 총서 4건(각 600만원 이내)으로,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단행본 발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신품종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가라향, 레드향, 하갈, 유라조생, 레몬.	달코미, 우리향, 미래향,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카라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괘 - 한라봉 2년

##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니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27 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엠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탈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귤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